

기아차 '쏘울' 해외서 잘 달린다

美·유럽서 인기 '수출 효자'로 부상

광주공장 생산라인 풀가동 분주

광주에서 만든 기아차의 크로스 오버 차량 '쏘울'(SOUL)이 해외 시장에서 쟁쟁 달리고 있다. 독특한 외관으로 일명 '박스카'(Box car)로 분류되는 쏘울은 전 세계적 불황에도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꾸준히 판매대수를 늘려가고 있어 수출전선의 효자로 떠올랐다. 덕분에 기아차 광주1공장의 쏘울 생산라인도 바빠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쏘울은 지난달 본격 출시된 뒤 한 달 만에 미국에서 1천246대가 팔렸다. 이미 오전에 북미 시장에서 진출한 경쟁차 도요타 '싸이언xR'이 2천90대, BMW 미니 쿠파가 3천605대 판매된 것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다.

유럽에서는 작년 12월 166대가

팔렸지만 1월에는 1천334대, 2월에는 1천505대, 3월에는 2천256대로 판매량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체 수출 물량도 지난 1월 4천409대에서 2월에는 8천849대로 배증했다. 3월에는 8천501대로 궤도를 유지했다.

3월 내수 판매가 2천52대인 것과 비교하면 전체 판매량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했다.

쏘울이 해외에서 호평을 받는 이유는 직선형을 띤 독특한 외형과 실내 디자인, 라이팅 시트, 라이팅 스피커 등 개성 있는 신사양이 고객들의 시선을 끄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유력 자동차 평가기관인 켈리블루북(Kelly Blue

Book)사(社)가 선정한 '5개 최상의 선택' 차종에 오르고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상과 미국의 유력 자동차 전문미디어 워즈오트(Ward's auto)가 선정하

는 '올해의 인테리어'상을 수상하는 등 전문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도 힘이었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쏘울 수출 실적이 글로벌 경기악화에

도 차츰 늘고 있다"며 "광주공장도 수출물량을 대기 위해 주야 8시간씩 2교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 동구-日 토바시 교류협력 다짐

광주시 동구 주민자치협의회와 일본 미에현 토바시 상공회의소는 10일 동구청 상공실에서 양 지역의 문화 행사 및 경제 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고수용 동구의회 의장, 마츠다 오토히사 일본 토바시 상공회의소 부회장, 박홍석 동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유태명 동구청장.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시설

부패 공무원 퇴출 공직기강 확립 계기돼야

앞으로 고의로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은 지방 공무원은 공직사회에서 퇴출당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지방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과실에 의한 공금 횡령이나 유용이라 해도 다른 비리 유형보다 무거운 해임이나 강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또 금품이나 향응 수수의 경우 100만원을 넘으면 정칙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100만원 미만이라도 중징계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에서 통보하는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나 '공소제기'는 강제 조치토록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공금 횡령·유용이나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 유형별로 세분화된 징계기준이 없어 지방 공무원의 비리를 기유 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최근 전국 각 지자체에서 잇달아 터

진 복직금 횡령 사건도 자체 감사제도의 미비점과 함께 불분명한 징계기준 때문에 가능했다. 지자체 내에서 비리가 발생해도 자체에서 해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게 사실이다.

지자체 공직 비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단체장을 포함한 지방공무원의 각종 비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전남지역의 경우만 보더라도 22개 지자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개 단체장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은가.

우리 사회에 횡행하고 있는 온갖 부패와 부정도 공직자 비리에서 비롯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 없이 지자체 발전은 물론 선진사회 진입은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징계 강화를 계기로 지방 공직사회가 맑아지기를 기대한다.

도교육청 '학력 높이기' 성과 거두려면

전남도교육청이 올해를 '학력제고'의 해로 정하고, 학력미달 학생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교실수업 개선과 학력관리 시스템 강화 등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기초학력을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우리는 이번 도교육청의 학력 높이기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반쪽 이벤트를 그치지 말고 전남지역의 새로운 교육브랜드로 창출하려는 것이다. 특히 도교육청이 슬로시티의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살려 전원학교, 개별학습,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할 경우 학력신장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도교육청의 '학력 높이기 프

젝트'는 뉘는 감이 없지 않다. 지난 2월 공개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광주·전남지역의 학력격차가 극심해 큰 충격을 주었다. 전남 초등학생들은 광주 학생보다 학업 성취도가 낮지만 중·고교생들은 광주학생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졌다. 게다가 같은 전남지역에서도 여수, 광안 등 동부권 시 지역과 장흥, 신안 등 동남권 및 도서 지역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비율이 15~20%까지 차이가 났다. 학력 격차는 지역 격차와 인제 유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도교육청의 학력 높이기 프로젝트가 실효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공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우수한 교사들이 열의를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분위기가 정착돼야 한다는 얘기다. 공교육 정상화 없는 학력제고는 한낱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

이 대통령 태국 도착... '아세안+' 일정 시작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제12차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담'을 갖는 태국 파타야에 도착, 2박3일간의 태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55분(현지시간) 아시아나 특별기편으로 우타파오 국제공항에 도착, 정세균 주(駐)태국 대사과 태국측 직전책임자 등의 영접을 받았다.

곧이어 이 대통령은 시내 한 호텔에서 아파시 워치와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한

다.

이 대통령은 태국 방문 둘째 날인 오는 11일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갖는데 이어 '메인 이벤트인' 아세안+3 정상회담에 참석,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한 뒤 국제공조 강화를 강조할 예정이다.

또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와 울들어 세번째 양자회담을 갖고 최근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이달 초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의 당시 회담을 했던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다시 만나 양국간 협력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테인 세인 미얀마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명박뉴스



이승기 광주상의 회장 사임

이승기(58) 삼승건설 회장이 10일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회장은 최근 정부의 1, 2차 건설·조선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신이 경영하는 삼승건설에 이어 송촌종합건설까지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 분류된 후, 기업회생절차 신청·부도가 잇따르면서 상의 회장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 달 20일 단독 출마해 제 20대 광주상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상의는 회장 궐위에 따른 새 회장 선출을 위해 조만간 부회장단 회의를 열어 회장직무대행을 선임하고 회장직무대행이 의원총회를 소집, 구체적인 선거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광주상의 정관엔 회장 궐위시 14일 이내 의원총회를 열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한 오는 24일 안에는 회장 선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로 2가-20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홍보부 2200-661	광고매점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정 10,000원 / 부 400원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韓銀 “올 성장률 -2.4%” 하향 전망

“국내 경기 내년부터 완만한 회복 국면 진입”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올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2.4%의 역(逆)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경기는 올 상반기 최악의 침체기를 거쳐 내년에 완만한 회복 국면에 진입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10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상반기에 작년 동기 대비 -4.2%, 하반기에 -0.6%를 기록해 연간 -2.4%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예측한 2.0%보다 4%포인트 이상 낮아진 수치로, 정부가 제시한 수정 전망치인 -

2%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전망이 현실화하면 1998년(-6.9%)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분기별로는 올해 1분기 -4.2%, 2분기 -4.1%로 상반기 내내 부진하다가 하반기 때는 감소 폭(-0.6%)이 줄어드는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한은은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과 추경 예산 편성 등이 경기 하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세계경제 회복에 중요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복구가 빠르게 이뤄질 가

능성은 크지 않아 우리 경제도 단기간 내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내년에는 세계 교역 여건이 개선되고 내외 수요가 늘어나면서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재천 한은 조사국장은 “내년에 3.5% 성장을 해도 올해 2% 감소한 이후 성장여섯 전제적인 경제 공급 규모나 잠재성장률과는 상당한 갭(격차)이 존재할 것"이라며 “경기 회복 속도가 매우 느려 피부에 와 닿게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립뉴스

캐나다, WTO에 한국 제소

쇠고기 수입 금지 관련

캐나다가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라며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쇠고기 문제가 다시 우리나라의 통상 현안으로 떠올랐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10일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산(產) 쇠고기의 한국 시장 접근 문제에 대해 9일 WTO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사관 측은 “캐나다산 쇠고기 파소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수많은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언제 해제할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2003년 5월 21일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금지 조치가 취해진 뒤 지금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요청한 '협의' 단계는 WTO 분쟁 해소 절차 중 제1단계다. 양 당사자가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 60일간 이견을 조정하게 된다. 다만 당사자들이 다른 날짜에 합의할 경우 이보다 늦춰질 수 있다.

만약 협의 단계에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 WTO 회원국들로 일종의 재판부에 해당하는 분쟁 해소 패널을 구성해 결정을 찾아야한다.

연립뉴스

‘석면 의약품’ 판금 혼란 확산

석면 함유 우리가 있는 의약품들에 대해 회수 및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다음 날인 10일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제약업체와 의료계 현장에서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판매금지 의약품을 복용 중인 소비자들도 약품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불안해하는 등 보건 당국의 미숙한 행태에 국민 전체가 불편을 겪고 있다.

의사와 약사, 제약업체들은 석면

함유 가능성이 있는 1천222개 품목의 의약품에 판매 금지하고 회수에 나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아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원과 약국들은 이미 처방했거나 판매한 판매금지 의약품에 대해 환자가 환불, 재처방 등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침이 전혀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환자들도 복용 중인 판매금지 약을 약국에서 다른 약으로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지, 해당 약이 전문 의약품일 경우 대체 약을 처방받으려면 의사에게 진료비를 또 내야 하는지 등을 궁금해하는 상황이다.

판매금지 약품에 대한 재처방의 경우 의료기관이나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없어 환자들만 진료비를 한 번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회사원 백모(36)씨는 “언론보도를 보니 식약청에선 해당 약들을 먹어도 해가 없다고 했다던데, 그렇다면 판매 금지는 왜 시켰느냐”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할 뿐”이라고 말했다.

연립뉴스

횡령·금품수수 공무원 최고 파면

행안부 규칙 개정

앞으로 고의로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은 지방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전 규칙에서는 공금 횡령·유용이나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 유형별로 세분화된 징계기준이 없이 성실의무 위반이나 청렴의무 위반

등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었다.

행안부는 그러나 이번 개정 규칙에서 징계기준을 세분화해 공무원이 고의로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 파면이나 해임토록 했다. 과실에 의한 공금 횡령이나 유용이라 해도 다른 비리 유형보다 무거운 해임이나 강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금품이나 향응 수수의 경우 100만원을 넘으면 정칙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100만원 미만이라도 사안이 따라 중징계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립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끝내

국립발레단 '신데렐라'

20~21일 해남서 공연

국립발레단의 '신데렐라'가 해남을 찾는다. 해남군은 “국립발레단이 20~21일 해남 문화예술회관에서 '신데렐라'를 공연한다”고 10일 밝혔다.

'신데렐라'는 세계 최고 안무가인 '장 크리스토프 마이어'가 고전의 아름다움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탄생시킨 작품으로 지난달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번 공연은 국내 최고 수준의 예술단체가 소외 지역 문화회관에서 우수 레퍼토리를 선보이도록 하는 문화관광부의 '방방곡곡 문화 공감'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관람료는 일반인 5천원, 학생 3천원이며, 지정 좌석제로 운영되고 예매는 14일부터 해남문화예술회관 등 4곳에서 한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박람회 국가관 설계’ 현상공모 합니다

여수박람회조직위

2012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 10일 '박람회 국가관 설계'에 대한 현상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9, 10월께 응모한 설계안 중 당선작을 선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0년 중반 착공할 계획이다.

4개동 약 13만㎡, 총사업비 약 2천억원 규모의 국가관은 여수세계박람회의 중심 전시시설로 박람회 참가국 100여 개국이 활용한다.

박람회조직위원회는 국가관과 함께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핵심 건축물로 꼽히는 주제관 설계도 이달 중으로 현상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